

잉꼬부부로 살았는데... '윤정희 형제-백건우' 후견권 소송 왜?

윤정희 '아파트 방치설' 의문

형제들, 2019년 후견인 이의 소송 지난해 "백건우·딸에 후견권" 패소 영화계 "어쩌다 이렇게까지" 씩씩

배우 윤정희(77)가 프랑스 파리에서 홀로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가 이에 반박하면서 갈등의 배경에 윤정희의 후견인 지정 문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츠하이머와 싸우며 일상적 생활이 쉽지 않았던 윤정희의 후견권 문제를 둘러싸고 윤정희의 형제들과 백건우 측이 법적 분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 후견권 지정을 둘러싼 갈등?

백건우와 결혼한 뒤 오랜 세월 프랑스 파리에서 살아온 윤정희는 2019년 1월 모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국을 찾았다. 이후 그해 4월 백건우와 함께 프랑스로 되돌아갔다. 이즈음 백건우는 언론 인터뷰

를 통해 아내가 알츠하이머 투병 중임을 알렸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백건우가 2019년 4월 말 갑자기 나타나 자고 있던 윤정희를 강제로 깨워 납치하다시피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정희 후견인 지정 문제가 불거졌다. 두 사람과 교유해온 영화계 한 관계자는 7일 "윤정희의 형제들이 2019년 5월 프랑스 파리 현지 법원에 윤정희의 후견권 문제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앞서 백건우와 딸이 후견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이의 신청 방식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파리고등법원도 지난해 11월 후견권이 백건우와 딸에게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형제들이 (윤정희에 대해)자유롭게 전화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감옥 속 죄수를 면회하듯 횡수와 시간을 정해줬다"고 썼다. 이에 대해 백건우 측은 "계



백건우가 다정하게 윤정희를 안아주고 있는 모습. 사진은 2019년 1월 초 윤정희가 알츠하이머를 앓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DB

시글에 언급된 제한된 전화 및 방문 약속은 모두 법원의 판결 아래 결정된 내용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 "평생을 함께 연주여행 다녔는데..."

이 같은 상황에 1976년 결혼 이후 함께 '연주여행'을 다니는 등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과시해온 윤정희·백건우 부부를 향한 안타까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정희가 1960년대 이후 한국영화를 대표하며 문희·남정임과 함께 '트로이카'로 불렸던 배우이고, 백건우가 세계 클래식음악계의 스타로 오랜 세월 군림해오며 많은 음악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갈등이 일으킨 파문의 크기가 작지 않다.

백건우 측은 이날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연주여행을 다녔지만 몇 년 전부터 윤정희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하며 길게는 수십시간에 다다른 먼 여행길에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화계 관계자는 "현재 윤정희가 현재 프랑스 파리 근교의 거처에서 투병 중으로, 인근에 사는 딸이 오가며 간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당국의 권고로 간병인 도움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일상적인 소통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일본 집어삼킨 '뷔'의 인기

트위플 유명인 랭킹 10위... '네훨' 선 1위



'열도를 움직인 남자 뷔' 방탄소년단의 뷔가 일본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뉴스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김태형)가 일본에서 열풍에 가까운 인기를 얻고 있다. 한류 재점화 속에 방탄소년단의 특정 멤버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뷔는 최근 일본의 트위터 분석 사이트인 트위플(Twipple)의 '유명인 랭킹'(Celebrity Rank)에서 10위를 기록했다. 해외스타로는 유일하게 톱10에 올라 한국 연예인 1위를 차지했다. 소속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19위인 것과도 대비돼 이채롭다.

'유명인 랭킹'은 특정 인물의 트위터상 인기 정도를 분 단위 추이로 반영하는 지표로, 국내의 팬들의 관심도 높다. 일본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트위터가 가장 많이 사용된 국가이며, 특히 케이팝 관련 트윗을 올리는 이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나타나 뷔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뷔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뷔는 케이팝 아이돌 랭킹 사이트 '네훨(NEHAN, 音韓)'에서도 1위에 올랐다.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2016년 이후 개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성을 확인시킨다. 뷔는 멤버들 가운데 유일한 '연기돌'이라는 점으로 현지 팬들에게 소구했다. 2016년 출연한 드라마 '화랑'이 지난해 일본 TBS를 통해 방송됐기 때문이다.

뷔의 인기는 현지 뉴스프로그램이 케이팝 관련 경제 효과를 설명하는 지표로도 꼽혔다. TV도쿄는 뉴스프로그램 'WBS'(월드비즈니스새틀라이트)를 통해 뷔의 생일인 지난해 12월31일 팬들이 지하철 및 버스 래프팅 축하 광고를 집행한 사실에 주목했다. 'WB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팬들의 응원이 현지 지하철과 버스 회사의 매출을 올리며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베일 벗은 넥플릭스 영화 '승리호', 세계 이목 사로잡았지만...

"우주 액션 스펙터클한데, 신선하지 않아"

3일 만에 '세계 가장 많이 본 콘텐츠' 속도감 있는 전개에 "극장판 강추"

"스펙터클하다. 하지만 신선하지 않다. 그래도 극장에서 보고 싶다."

한국영화 첫 우주SF 블록버스터를 표방하며 5일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승리호'에 대한 시선이다. 엇갈리는 시선 속에 일찌감치 글로벌 프로젝트임을 선언한 영화는 7일 현재 '전 세계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에 올랐다. 영상기술력으로 속도감 있는 전개와 '우주 액션'의 새로움을 안겨줬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야기 자체가 그리 신선하지 않다는 반응 속에 스펙터클함을 온라인과 TV가 아닌, 극장에서 보고 싶다는 바람도 쏟아지고 있다.

영화는 극도로 황폐해진 지구 대신 인공행성에서 살아가는 극소수 선택된 자들과 '비시민'으로 규정된 대다수 인류



수차례 개봉 연기 끝에 넷플릭스에서 5일 공개된 영화 '승리호'. 사진(왼쪽부터) 진선규·김태리·송중기는 호평과 아쉬움을 동시에 얻은 영화 속 한 장면. 사진제공 | 넷플릭스

가 온갖 차별과 규제 속에 우주를 떠도는 2092년을 배경 삼았다. 우주는 이미 쓰레기와 폐기물로 가득차고, 한국 국적의 우주정소선 승리호와 선원들은 극심한 생존경쟁을 벌인다.

송중기·김태리·진선규·유혜진이 주

연한 영화는 240억원의 대규모 제작비로 광활한 우주와 그 속을 날아다니는 우주선들, 디스토피아의 풍경을 담아내며 우주SF 블록버스터의 위용을 자랑한다. 1000여명 제작진이 2500여컷의 방대한 장면 중 무려 80%인 2000컷을 VF

X(특수시각효과) 등 영상기술력으로 표현해냈다. 이는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7일 OTT 랭킹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럴'에 따르면 영화는 전 세계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를 차지했다.

다만 환경오염과 물신주의 등 현실에 대한 우회적 비판의 시선으로 가족애와 휴머니즘의 가치를 그려냈지만 설정과 스토리라인이 "그리 신선하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최대 규모 영화 전문 사이트 IDMB는 10점 만점에 6점 대를, '신선도 지수'의 대표적 평가 사이트인 로튼토마토는 80%대 평점을 각각 안겼다.

그럼에도 영화를 본 적지 않은 이들이 SNS를 통해 "스펙터클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ILDONG 일동생활건강



남성들만의 고민, 이제 하루 한 알로!

진정한 남자의 자신감의 시작은 건강한 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옥타파워맨'은 중년남성이 겪는 말 못할 고민의 원인을 찾아 케어합니다. 이제, '옥타파워맨'으로 꾸준한 관리를 통해 자신감을 완성하세요!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 ☑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싶은 남성
- ☑ 지치지 않는 체력을 유지하고 싶은 남성
- ☑ 활력이 부족해지는 것을 느끼는 남성
- ☑ 건강한 자신감을 유지하고 싶은 남성
- ☑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가 저하된 남성



무료로 드립니다.

일 옥타파워맨

남자의 고민 이유있는 하루 한 알!

전립선! 지구력!

'옥타파워맨'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한 섭취 1일 개별 포장식품으로 휴대가 편리하여 언제 어디서든 간편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남자들의 자신감!

하루 1캡슐로 채우자!

전화주시면

정품 1통(12일치)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택배비 3,000원 본인부담 (우체국택배)



제조원 (주)우리바이오 | 판매처 (주)현대생활건강

선박한 주원료 8가지

- | | |
|---|--|
| 옥타코사놀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아연 정상적인 면역 기능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나이아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 엽산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 비타민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 비타민B2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에너지 대사 및 면역기능에 필요 |

무료체험 신청전화
1899-3022